

범죄자가 추구하는 ‘거짓 행복’의 실체와 ‘참된 행복’의 탐색*

The Reality of ‘False Happiness’ Pursued by Criminals and the Search for ‘True Happiness’

김재민 (Jaemin Kim)**

ABSTRACT

Recent digital sex crimes can be attributed to perpetrators holding false concepts of happiness.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auses and characteristics of such false happiness and explore the perspective of true happiness based on a biblical worldview. Generally, the concept of happiness refers to human satisfaction and joy, but in modern society, it has expanded to include self-realization and the achievement of ethical values. The Bible argues that true happiness can be attained by practicing the moral standard of “loving one’s neighbor.” In contrast, the false happiness sought by certain criminals is characterized by fleeting pleasures, material greed, and obsession with power, leading them to commit illegal acts due to their distorted view of happiness. Such behavior harms both individuals and society, and thus does not constitute true happiness. Utilizing the ‘false happiness theory’ to address crime issues allows for a comprehensive explanation by integrating existing crime theories. Furthermore, the ‘true happiness theory’ based on Christian worldview can address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crime theories.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promote biblical discourses on happiness to understand the causes of crime among certain types of offenders and to prevent crime effectively.

Key Words: false happiness, true happiness, criminal, bible, Christianity

* 2024년 8월 2일 접수, 9월 2일 최종수정, 9월 9일 게재확정

** 경일대학교(Kyungil University)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 50, dogoodwill@hanmail.net

I. 서론

1. 연구 배경

몇 년 전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 불법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거래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발생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 한 적이 있었다.¹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건이 최근에 다시 발생하였다. 이 사건의 주범인 박모씨는 2021년 7월부터 재학시절 알고 지내던 후배 여학생들의 사진에 다른 이의 나체 사진을 편집하여 만든 사진과 영상을 해당 학생들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혀 오다가 2024년 4월에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 사건이 매우 충격적이었던 점은 검거된 범피자가 국내 명문대학 출신이었다는 점과 서로 잘 아는 여성을 디지털 시스템을 활용하여 성폭력을 가했던 소위 ‘지인능욕(知人凌辱)’형 디지털 성범죄였다는 사실이었다.

일반인의 상식적 견해로는 대학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자는 자신의 본능을 잘 통제하면서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 하지만 범죄발생의 실태를 살펴보면 범주는 교육수준과 지적 수준이 낮은 자들에 의해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교육수준과 지능이 높은 자들에 의해서도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가조작, 분식회계 등 지능범죄를 범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사례가 주목을 끄는 이유는 지적 수준이 높은 이들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성범죄를 범했다는 데 있다. 이들의 범주는 이성적 판단작용 없이 범행을 하는 정신병 환자들의 범행과는 다르다. 자기도 모르게 사회적 환경의 영향도 받았겠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나름의 만족감을 얻기 위한 행동이었음은 분명하다.

이처럼 인간이 범죄행동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한 마디로 잘라 말할 수는 없다. 고전주의 범죄학에서는 범인이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이미 손익계산을 충분히 거친 다음 자신의 쾌락을 극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범죄로 인해 초래된 결과에 대하여 충분히 도덕적 비난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대 범죄학에서는 범인이 성장하였던 사회적 환경과 성장과정에서 작동하였던 심리적 환경이 범죄행동에 기여하는 측면을 보다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범죄라는 것은 어떤 한 가지 요인 때문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이 서로 어우러져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범죄가 이와 같이 복합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범죄학자들이 제시해 온 기존의 범죄이론만으로는 아직 범죄발생의 원인이 충분히 규명되지 못하고 있고, 범죄예방 대책도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1) KBS뉴스 2020. 3. 22일자. “미성년자 ‘노예’ 만들어 자극적 영상물 촬영…지금도 거래된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407276> (검색일 2024. 6. 29)

이에 필자는 행복론적 관점에서 범죄문제에 접근해 보고자 하였다. 즉,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데 범죄자들이 지향하는 행복론과 정상인이 지향하는 행복론이 다르다는 전제를 갖고서, 겉으로는 행복을 줄 것 같으나 결국에는 불행의 결말을 가져오는 거짓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범죄에 이르게 된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접근이 주는 유익은 범죄원인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총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는 점이며 이와 동시에 범죄문제에 대한 통전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만, 이러한 접근도 한계를 가진다. 정신병자나 극단적인 걱정범 및 충동범 등은 심사숙고의 이성적 판단작용 없이 범행을 감행하기에 '거짓 행복의 추구 행위'라는 것으로 설명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적어도 '이성적 판단작용'이 가능한 범죄자에 국한되어야 하는 제약이 있다.

거짓 행복을 추구하는 관성을 타파하고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길을 탐색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종교적 영역과도 연결이 될 수 있기에 필자는 본 연구에서 범죄문제의 원인 및 그 해결책으로 종교를 통한 참된 행복 추구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기독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 등 각종 종교의 교리 속에 나타난 범죄에 관련된 사상이나 행복론을 모두 검토해야겠지만 여기서는 기독교 세계관에 중점을 두고서 성경에 나타난 행복론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해 나가하고자 한다.

2. 행복의 개념

행복의 사전적 정의는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의 좋은 감정으로 심리적인 상태 및 이성적 경지 또는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느끼는 상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 하는 것'을 뜻한다고 말하고 있다.² 이와 같은 사전적 정의는 만족스러운 현재 생활의 상태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으며, 감정적 경험과 느낌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행복에 대한 정의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인간이 어떤 세계관 및 사상체계를 가지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정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심리학자들은 행복을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이라 부르고 있는데 긍정적 정서 경험을 많이 할수록 행복하다고 말한다(Diener & Larsen, 1993).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아브라함 마슬로우(Abraham H. Maslow)는 5단계 욕구이론을 전개하면서 인간에게 가장 큰 만족감을 가져다 주는 욕구로서 자아실현 욕구를 거명한 바 있는데(하구만, 2002:80-81), 이에 따르면 인간이 자아실현을 할 때 행복을 맛볼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고대 철학자들의 행복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는 '니코마코스 윤리학(Nichomachean Ehtics)'이

2) 위키백과 "행복의 정의". <https://ko.wikipedia.org/wiki/%ED%96%89%EB%B3%B5>. (검색일 2024. 7. 30)

라는 책에서 ‘행복이란 지극히 좋고, 지극히 고귀하며, 지극히 즐거운 것을 의미하는데, 가장 고귀한 것은 정의로운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은 건강이며, 가장 즐거운 것은 자기가 바라던 것을 얻는 것이다.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최고의 것을 행복이라 한다.’라고 하였다(Aristotle, 박문재 역, 2022: 42). 에픽테토스(Epictetus)는 ‘자유와 행복에 이르는 삶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삶의 목적은 행복이며, 행복은 마음의 평정에서 온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Epictetus, 강분석 역, 2008: 32, 42, 65). 이들은 사람이 자기가 바라던 것을 얻고 거기에서 마음의 평정을 누릴 수 있다면 행복한 인생이라고 본 것이다.

만일 행복이라는 것이 삶이 처한 상황에서 오는 좋은 감정으로 정의된다면, 상황의 변화에 따라 사람은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는 것이어서 인간은 매우 상황의존적인 존재로 된다. 그렇다면 객관적 상황이 열악하게 되면 모든 인간은 자동적으로 불행해 지는 것일까? 꼭 그렇지 않다. 행복은 인간의 생물학적 본능을 만족시키거나 외부적 삶의 조건들을 자신이 원하는 수준으로 달성하는 데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잠재적 가능성을 힘껏 펼침으로써 자아실현을 하고, 보다 차원 높은 윤리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사회에 유익을 끼칠 때에도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김인환, 2019: 21-22). 아브라함 마슬로우의 욕구이론도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고 보인다. 다만, 마슬로우의 욕구이론을 가지고 행복을 설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그는 하위 욕구의 충족없이 상위 욕구로 진행이 어려워 차원 높은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데 장애가 발생한다고 보았지만, 그 예외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생물학적인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한 상황에서도 보다 차원 높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활동을 함으로 행복을 누리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하규만, 2002: 82-83). 이것은 행복이 오로지 객관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의 상태와 상황 속에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견상 고통스럽고 불합리한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희생적 삶을 산다거나 혹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통해서도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국 인간이 추구해야 할 참된 행복이란 인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삶을 통해 본인이 최상의 즐거움을 얻는 동시에 사회 구성원에게도 크게 유익을 끼침으로 얻게 되는 만족스런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겠다. 이와 달리 얼핏 보기에 사람을 행복하게 해 줄 것 같으나,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욕구 충족을 통해 일시적 즐거움만을 얻을 수 있을 뿐, 인생의 의미나 가치를 더해 주지 못하고 중국에는 자기 자신은 물론 사회구성원도 해롭게 하는 사이비(似而非) 행복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를 필자는 ‘거짓 행복’이라 이름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참된 행복을 탐색하기 위한 선행 단계로서 범죄자들이 추구하는 거짓 행복의 주요 특징과 그 양상, 그리고 거짓 행복을 추구하게 된 원인 등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그 실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범죄자가 추구하는 '거짓 행복'의 실체

범죄자들은 어떤 행복 개념을 가지고 있을까? 아무리 범죄행위를 통해 자신이 행복해진다고 하여도 그 범죄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해함으로써 타인의 행복을 깨뜨리게 된다면 그들이 지향하는 행복 개념은 병들어 있는 거짓 행복이자, 사이비 행복이라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거짓된 사이비 행복은 궁극적으로 자신과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반면, 참된 행복은 자기를 행복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타인도 행복하게 해 준다. 사람이 어떠한 행복 개념을 지향하는지는 그가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며 나아가는가에 매여 있다. 이하에서는 겉으로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불행의 실마리가 되는, 범죄자들이 추구하는 '거짓 행복'의 주요 특징 3가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물론 여기서 범죄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이성적 판단작용이 가능한 자에 국한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1. '거짓 행복'의 주요 특징

(1) 순간적인 육체적 쾌락 향유의 추구

육체적 쾌락을 추구한다고 해서 모두 악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기도 하다. 17세기 가톨릭 사제였던 가쌍디(Pierre Gassendi)는 쾌락을 행복한 삶의 목적으로 규정하면서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들의 최상의 원리가 쾌락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다만, 그는 인간의 욕망을 자연적 욕망, 필연적 욕망, 덧없는 욕망으로 분류하면서 삶을 제대로 향유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잘 구분해야 하고, 과도한 쾌락의 탐닉은 해를 끼친다는 것과, 질적으로 더 나은 쾌락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순간적 쾌락을 포기하고 인내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조병희, 2015: 166).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도 쾌락주의를 표방하면서 가장 큰 선(善)은 소박한 쾌락을 추구하여 평정(ataraxia)과 신체적 고통(aponia)에서 자유로운 상태를 얻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그가 옹호했던 쾌락은 주로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쾌락과 우정과 평온한 삶에서 얻는 쾌락이었기에(Clark et al. 김영진 외, 2004: 70-73), 범죄자들이 추구하는 순간적이고 즉흥적인 육체적 쾌락과는 차이가 있다.

범죄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즉흥적으로 육체적 만족을 쫓는 쾌락주의이다. 이 유형은 의미나 가치의 추구에 따른 정신적 쾌락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현대 범죄학이론을 토대로 살펴볼 때 이러한 쾌락주의는 충동적 범죄행위를 촉진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보통 표출적 성범죄자들은 육체적 쾌락을 맛보기 위해 순간적, 즉흥적 충동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즉흥적으로 쾌락을 누리고자 하는 것은 결코 자신을 종국적으로

로 행복하게 해 주지 못하기에 그들이 누리는 행복은 ‘거짓 행복’인 것이다.

(2) 물질 만능주의의 채택

폴 트립(Paul David Tripp)은 그의 저서 ‘돈과 섹스’에서 ‘실용적인 나 중심의 현재주의’가 우리 사회를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돈에 미쳐 있는 이 세상 모습은 세상에 만연한 ‘영원성에 대한 기억 상실증’ 때문이라고 말한다. 물질만능주의는 이와 같이 지금 이 순간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태도와 물질이 자기를 최대 만족시켜줄 수 있고, 그 물질을 통해 이 땅에서 낙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보는데서 시작한다고 보고 있다(Tripp, 이지혜 역, 2013: 264-267).

물질 만능주의라 함은 돈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보는 신념을 의미한다. 이 사상을 견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돈에 크게 집착하게 되고, 더 많은 돈을 벌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다. 이처럼 돈에 대한 집착은 소비주의를 부추긴다. 그리고 끊임없는 돈에의 집착은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유발할 수 있기에, 중국적으로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을 얻지 못하게 하고, 인간관계를 왜곡하여 많은 이들과 갈등을 유발시키고 그 관계를 깨뜨리기까지 한다.

결론적으로 물질 만능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많은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돈을 버는 과정에서 윤리적, 도덕적 가치를 저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부정직한 행동, 불법 행위, 비윤리적 결정 등을 함으로써 범죄행위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기업의 회계부정, 관료들의 뇌물수수, 재산가들의 탈세 등의 범죄는 물질 만능주의자들의 왜곡된 행복 개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3) 타인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에의 집착

권력을 가지는 것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다. 권력이 바르게 사용되면 조직과 사회를 안정시키고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게 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역량이 되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할 수도 있다. 특히 어떤 사회나 집단이 위기 국면에 처해 있을 때 권력자가 지혜로운 판단을 신속하게 내려 위기를 돌파해 나간다면 권력의 효능은 더할 나위 없이 클 것이다. 권력을 창조적으로 활용하면 사람들에게 생명, 기쁨, 평화를 가져다주고, 인간 관계를 회복시킨다. 창조적 권력자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권력을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로 이어지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파괴적인 권력은 인권을 유린하면서 사회 구성원들을 불행에 빠뜨릴 수 있고, 이 파괴적 권력이 오만과 결합하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남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데서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는 범죄유형으로는 권력을 가진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 범죄조직 구성원들이

범죄세계에서 자신들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정치적 독재자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저항하는 시민들을 불법적으로 탄압하는 행위, 테러리스트들이 특정한 정치적, 종교적 목적달성을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가정에서 가장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하여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Foster, 2009).

오직 권력획득이 목표인 권력 지상주의자들은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게 되며, 그 결과 타인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게 된다. 남을 지배하고 통제하는데서 즐거움과 쾌락을 느끼기에 이들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가 곧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러한 행복은 거짓 행복이다. 권력에 중독된 자들에 의해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 질 수 있는 것이다.

2. 범죄자들이 추구하는 '거짓 행복'의 실제 양상

범죄자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위에서 살펴보았던 거짓 행복의 특징들을 다 지니고 있다. 여기서는 범죄자들이 거짓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실제적 양상을 3가지 형태의 대표적인 연쇄살인 범죄 유형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고자 한다. 즉, ① 욕정·스릴형 범죄, ② 금전추구형 범죄, ③ 권력·통제형 범죄 등이 그것이다(오윤성, 2019: 382-384).

(1) 욕정·스릴형 범죄

먼저 욕정·스릴형 범죄는 육체적 즐거움을 극대화하는 것이 자기에게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피해자에 대해 성폭력을 포함한 극단적이고 새디스틱(sadistic)한 폭력행위를 사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Schechter, 2004:209). 대부분 성적 만족을 추구하고 자 개인적인 폭력성을 표출하다가 이내 강간 혹은 살인을 하게 된다. 이들은 폭력의 극단적인 선택인 살인행위를 통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인식하게 되므로 살인행위 조차도 에로틱한 경험으로 삼는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자들은 상황이 허용하는 한 살해행위를 지연시키며 희생자의 무력한 모습을 즐기게 되는데 주로 성적 만족 획득을 목표로 범행을 하게 된다. 2004년 1월 14일부터 2006년 4월 22일까지 서울, 경기도 지역에서 13명을 살해하고 20명에게 중상을 입힌 연쇄살인범 정남규는 강간 후 살인을 자행했던 쾌락살인마로서 욕정·스릴형 범죄자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³

(2) 금전추구형 범죄

금전추구형 살인범들의 경우에는 욕정·스릴형 범죄와는 달리 성적 만족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3) [https://namu.wiki/w/%EC%A0%95%EB%82%A8%EA%B7%9C\(%EB%B2%94%EC%A3%84%EC%9E%90\)](https://namu.wiki/w/%EC%A0%95%EB%82%A8%EA%B7%9C(%EB%B2%94%EC%A3%84%EC%9E%90)) (검색일 2024. 8. 26)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범행을 한다. 청부살인을 비롯 전문적인 암살행위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돈을 받고 사람을 대신 살인하는 경우 외에도, 채권·채무관계의 상대방을 살해한다든지, 이권경쟁을 하고 있는 사람을 살해하는 등 자신과 특정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을 금전적 이익 때문에 살해하는 경우도 있으며, 전혀 인간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살인을 통해 많은 금전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도 살인을 감행한다. 보통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이러한 유형의 연쇄살인에 가담하게 되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오윤성, 2019: 383). 2024년 5월 16일 태국 파타야에서 3명의 남성이 30대 한국인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드림통 살인사건’은 돈을 노린 계획범죄였다. 피해자 A씨가 범인들에게 휴대전화로 ‘돈 자랑’을 하자, 피의자 일행은 방콕 유흥지 RCA의 한 술집에 피해자 A씨를 불러 약을 먹이고 폭행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경찰이 밝힌 것이다. 이는 금전추구형 살인범죄의 대표적 사례라고 볼 것이다.⁴

(3) 권력-통제형 범죄

권력은 타인을 지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사회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사회구성원들을 적절히 통제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남을 통제하는 행위 그 자체에서 즐거움을 얻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왜곡된 행복개념을 가지고서 거짓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연쇄살인범 중에서도 권력-통제형 살인범은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지배를 통해 쾌락을 얻는 자들이다(Holmes & Holmes, 2002). 이들도 성적 만족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욕정·스릴형 연쇄살인범처럼 성적 만족이 필수요소는 아니다. 다만 타인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사실, 즉 대상자를 원하는 바대로 마음껏 통제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지녔다는 사실에서 만족감을 얻게 되고 여기서 얻는 만족감은 욕정·스릴형 살인범들이 느끼는 성적 즐거움과 유사하다고 한다(오윤성, 2019: 384).

3. 거짓 행복을 추구하는 원인

여기서는 범죄자가 거짓 행복을 추구하게 된 원인을 범죄원인론 중 대표적인 몇 가지 이론, 즉 고전주의 범죄학의 합리적 선택이론과 실증주의 범죄학 중 심리학적 원인론 및 사회적 원인론 등과 연관 지어 살펴본다. 범죄자들이 거짓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자기 나름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일 수 있고, 도덕적 인지발달이 제대로 안 된 탓일 수 있으며, 안정적 애착관계 형성의 실패로 인한 것이거나, 자연스럽게 사회적 학습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4) 뉴스1 2024. 5. 16일자. “태국 파타야 드림통 살인사건, 돈 노린 계획범죄였다.” <https://www.news1.kr/world/asia-australia/5417462> (검색일 2024. 8. 26).

(1) 쾌락 추구를 위한 합리적 선택

고전주의 범죄학자들은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하기에 앞서 이성적 판단과 합리적인 계산을 통해 즐거움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합리적 선택의 행동을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범죄로 인한 즐거움이 처벌의 고통을 능가하면 범죄를 수행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를 벤담(Bentham)은 '쾌락주의적 계산이론(hedonistic calculus theory)'이라고 칭하였다(김재민, 2018: 53). 이처럼 체포로 인한 비용과 범죄의 성공으로 인한 쾌락의 크기를 비교한 후 발각되거나 체포되지 않은 채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쾌락을 누릴 수 있다고 판단하면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보는 것이 고전주의자들의 주장이다. 특히 육체적 쾌락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최대 행복이라고 믿는 유클리드형 연쇄살인범들이 범행 후 체포되지 않기 위하여 철저하게 증거를 인멸하는 행동을 자행한 다든가, 과거 디지털 성폭행을 저질렀던 N번방 사건의 범법자들이 수사경찰을 우습게 여기며 범행을 이어 나갔던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2) 애착형성의 실패로 인한 저항

에인스워스와 벨(Ainsworth & Bell)은 유아가 성장하면서 어머니와 애착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범죄행위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그들은 애착유형을 안정애착, 저항애착, 회피애착 등 3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이 중에 저항애착과 회피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면 유아에게 수많은 심리학적 문제들이 발생하여 장래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한다. 이 중에 저항애착은 어머니가 아이의 행동을 정확히 이해 못하고 일관성이 없을 때 발생하는데 아이의 보호자에게 분노의 저항행동을 보이거나 무력감을 나타내 보인다는 것이다(오윤성, 2019: 82 ; Wood & Riggs, 2008: 259-275). 이것은 비단 유아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다. 부모가 성장기에 있는 자녀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채 일관성 없이 기분에 따라 훈육할 때 자녀들은 분노의 감정을 억누르고 삭이며 지내다가 특별한 계기가 주어지면 그 분노를 사회에 표출시킴으로써 저항할 수 있는 것이다. 억눌린 분노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이 사회적으로 범죄는 될지언정 범죄자 본인에게는 억압된 감정의 발산에 따라 자유와 해방감을 맛보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안정적 애착형성에 실패한 청소년들이 범죄집단으로 편입되면 그 조직안에서 안정감을 얻게 되어 결국 거짓 행복의 늪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3) 도덕적 인지능력 개발 미흡

콜버그(Lawrence Kohlberg)라는 학자는 인간의 도덕수준이 ① 관습 이전 단계, ② 관습 단계, ③ 관습 이후 단계 등 3단계로 개발이 된다고 보았다. 관습 이전 단계는 처벌을 피하거나 보상을 받기

위한 행동을 하는 단계로서 저급한 도덕적 인지능력을 갖는 것을 의미하고, 관습 단계는 주위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행동이나 사회의 통상적 도덕 수준을 인지하고 행동하는 단계이며, 관습 이후 단계는 법의 제약과 상관없이 자신이 선택한 도덕원리에 따라 행동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인지능력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허경미, 2015: 76-77 ; 김재민, 2018: 130-131). 이 3가지 단계 중 범죄자들은 관습 이전 단계의 도덕 수준에 머무른다. 즉, 범죄자들은 어떤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은지 여부를 따지고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 가능성이 없거나 향유하게 될 유익이 처벌의 고통보다 훨씬 크다고 여겨지면 사회의 통상적 도덕적 기준에 아랑곳하지 않고 반사회적 행동을 감행할 정도로 도덕적 인지능력이 미숙하다고 보는 것이다(Henggeler, 1989: 26). 이들은 자신의 욕구충족을 통해 행복감을 느끼는지 모르나 그것은 거짓 행복인 것이며, 타인에게 해를 가하면서도 타인의 피해상황에 둔감하다는 점이 문제이다.

(4) 범죄행위의 사회적 학습과 모방

반두라(Albert Bandura)라는 학자는 사람이 범죄적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 범죄적 행동을 학습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Bandura, 1979: 198-236). 그는 범죄자에게 아무런 보상과 처벌이 없어도 다른 사람의 행동을 단순하게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범죄행위의 학습이 발생한다고 본 것이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성범죄가 상당 부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체험을 통해 학습되고 모방 된다고 보는 연구들이 많이 있다. 이는 반두라의 보보인형 실험을 통해서 이미 실증적으로 입증된 사항이기도 하다(김재민, 2018: 19).

한편, 서덜랜드(Edwin H. Sutherland)는 범죄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범죄를 하게 된다고 보았고(Sutherland, 1939: 154), 에커스(Akers)와 버제스(Burgess)는 그러한 범법자와의 상호작용에 추가하여 어떤 행위에 보상이 주어진다고 여겨질 때 그 행동이 더 강화된다는 주장을 하였다(Akers, 1977). 학교폭력을 일삼는 친구들과의 빈번한 접촉을 통해 결국 폭력조직에 가담하게 된다는가, 폭력조직에 입단하게 될 때 얻을 수 있는 영웅심 및 안전감의 보상 때문에 범죄적 행동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 위 학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예에 해당할 것이다. 사회적 범죄원인론의 특징은 범죄자가 특정 환경 속에서 범행을 학습하고 모방하는 일이 사회적 적응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적응과정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거짓 행복이라는 점을 지적해 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해 줄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

III. '참된 행복'의 탐색

앞서 범죄자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거짓 행복이라는 것과 이러한 거짓 행복은 범죄자들의 본능적 욕구를 잠시 채울지언정 중국에는 자기 자신과 범죄의 상대방 및 사회 구성원들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사이비 행복이라는 것을 언급하였다. 본 장에서는 그러한 거짓 행복을 대체할 수 있는 참된 행복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을 가지고 기술해 보고자 한다. 우선 성경 속에서도 거짓 행복에 관한 언급이 있으므로 그것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1. 성경 속 '거짓 행복' 추구의 양상

신학적 측면에서 인간이 거짓 행복을 추구하게 된 가장 근본 원인은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망각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죄의 권능에 붙잡혀 살아가게 되었던 것인데, 신학에서는 이를 인류 첫 조상의 타락사건(the Fall)이라고 하고, 이 사건을 통해 인류는 범죄적 본성을 지니게 되었다고 한다. 이하에서는 창조주가 제시한 행복한 삶의 원칙들을 벗어나 거짓 행복을 좇고 있는 성경 속 몇 가지 양상들을 소개해 본다.

(1) 비본질에 매이게 하는 우상을 좇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성경의 표현들은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기에 희망을 안겨주고, 축복하겠다는 것이 창조주의 본 뜻이므로 그 분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행복을 추구하는 하는 사람이 붙잡아야 할 본질임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생존 당시 지도층 인사들은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거짓 행복을 약속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속아 개인적인 욕망의 웅덩이를 판다. 하지만 그것은 터진 웅덩이기 때문에 결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생수를 얻지 못한다(예레미야 2:13). 이는 그들의 야심과 정욕이 투영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우상을 마음속에 두고 살았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악행을 일삼던 남유다 지도층 인사들은 결국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브갓네살 왕에 의해 죽임을 당하거나 사로잡혀 감으로써 나라 전체가 패망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예레미야 52장).

(2) 외모의 매력에 노예가 됨

성경 사무엘하 13장 2절에 나오는 다말이라는 여성은 다윗왕의 딸이자 압살롬 왕자의 누이였다.

그 오누이는 다윗이 그술 왕 달매의 딸 마아가라는 왕비에게서 나온 자들이었는데, 다윗왕의 또 다른 왕후 아히노암으로부터 태어난 암논이라는 왕자가 배다른 누이인 다말을 연모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암논 왕자는 이성 간의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였다. 그저 다말이 가진 육체적 매력에 홀린 나머지 계락을 꾸며 어린 누이를 강간하고야 말았다. 다윗 왕에게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청하라는 다말의 부탁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육체의 욕심을 채운 뒤 그녀를 내쫓는 악행을 저지른다. 이 일로 그는 다말의 오빠 압살롬에 의해 살해당하고 만다. 다말이 가진 외모의 매력에 노예가 되어 본능적 욕구를 좇았던 암논은 자기가 저지른 범죄로 인해 보복의 칼날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당장은 행복할 것 같았지만 그것은 거짓 행복이었다. 성경은 더러운 정욕에 따라 행함으로 인생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베드로후서 2:10).

(3) 물질적 탐욕에 취함

신약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물질적 탐욕의 극치를 달렸던 자의 예를 하나 들라 한다면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세리 삭개오를 거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1세기경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통치하고 있을 때에 로마정부로부터 징세권을 위임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혹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부를 축적했던 매국노였다. 그것도 변창하는 상업도시 예리고에서 세리장이라는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었으니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다행히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의 실천적 행동을 감행함으로써 물질적 탐욕의 굴레를 벗어나 참된 행복을 찾게 된다. 하지만 자신의 부가 영원토록 지속될 것처럼 여기면서 오직 재산 축적에만 골몰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예가 누가복음 12장에 소개되고 있고, 자신의 부를 향락에만 소비하면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던 탐욕적인 부자의 예도 누가복음 16장에 소개되고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사람이 죽으면 부의 축적이 의미 없음을 모르는 무지를 지적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가난한 자를 외면한 채 향락만 일삼는 부자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있다. 삭개오와 달리 위에서 예로 든 두 부자는 나눔이 없는 재산의 축적과 육체적 향락만을 위한 소비는 거짓 행복에 불과하다는 것을 제대로 깨우치지 못했다.

(4) 권력의 원천을 자신에게서 찾음

팀 켈러는 ‘내가 만든 신(Conterfeit God)’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사람이 권력과 통제에 중독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즉, 인간이 관념으로 만들어 낸 하나님을 신봉하는 세태를 지적하면서 후자의 경우에는 결국 자기가 운명의 주인이 된다고 한다. 이러한 신관(神觀)을 ‘도덕주의적 치유의 이신론(理神論)’이라고 한다. 세상을 창조한 신은 세상에 더

이상 개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살면 된다는 것인바 이런 입장에서는 자기가 얻은 지위와 권력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에 기인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Keller, 윤종석 역, 2024: 179-184). 하지만 권력의 원천이 자기라는 생각은 오만과 독선을 불러오게 되고, 권력의 중독을 초래한다. 그것은 이내 거짓 행복감에 취하게 만들어 결국은 패망을 초래한다. 모든 세상 권력의 원천은 만물의 창조자요 경영자인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기에 권력을 부여받은 자들은 청지기의 자세로 다스림을 받는 자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 성경적 관점이다. 성경 다니엘서 4장에 등장하는 느브갓네살 왕은 엄청난 제국을 이룬 위업이 자신의 능력에서 비롯되었다며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가 권좌에서 쫓겨나고 난 뒤에야 비로소 권력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대로 권력자를 세우신다(다니엘서 4:17).'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참된 행복으로 가는 관문을 발견하는 것을 보게 된다.

2. 참된 행복의 주요 특징

자기의 행복 추구를 위하여 타인의 행복을 파괴하는 것도 불사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불행에 빠뜨리고 마는 거짓 행복과 달리, 참된 행복은 자기 자신을 궁극적으로 유익하게 할 뿐 아니라 타인의 행복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행복 증진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가쌍디의 견해에 따르면 인생의 목적은 행복에 있는데 이 행복은 영혼의 안정을 방해하는 일체의 장애에서 벗어남으로써 도달할 수 있다. 다만, 현실 세상이 불완전하기에 인간의 행복추구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한다. 따라서 참된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정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조병희, 2015: 152, 156, 158). 이하에서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을 가지고 몇 가지 특징들을 제시해 본다.

(1) 실존적 한계를 인식함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할 때 참된 행복은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자신의 실존적 한계를 정확히 인지하는 겸허한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 그것은 인간의 내면에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범죄적 본능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마음의 자세이기도 하다.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실정법상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으며, 부지불식간에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부도덕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농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행복의 출발점이라고 본 것이다. 신에 의한 구원의 은총

은 인간이 죄의 본성을 지닌 연약한 존재임을 자각할 때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

성경 누가복음 18장 10절에는 당시 이스라엘 종교 엘리트인 바리새인과, 민족의 반역자로서 천민 취급을 받던 세리가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이 대조되고 있다. 바리새인은 헌금 및 금식을 철저히 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며 뉘뉘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지만,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악을 슬피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장면이다. 예수는 이 둘 중에 세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고 말한다. 이처럼 성경은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신의 은총을 받아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첫걸음이 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가쌍디가 말했듯이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막연하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에 떨며 살기보다는 오히려 이승에서 삶을 영위하는 동안 여러 즐거움을 만끽하며 그러한 쾌락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 준 신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조병희, 2015: 159).

(2) 신의 은총을 수용함

인간이 부패한 본성을 긍정하고 시인한다고 해도 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참된 행복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이 범죄적 본성을 소멸시켜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안타깝게도 인간은 이 범죄적 본성을 자기 혼자 힘으로 완벽하게 제거할 능력이 없는 존재이다.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크게 베풀지라도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의롭고 선한 행실은 절대자가 보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을 뿐이다(이사야서 64:6). 선행만으로 우리의 범죄적 본성이 고쳐질 수 없으며 하나님의 절대적 공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기에 인간의 자의적 노력만으로는 결코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한다.

성경은 인간이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하고 있다. 범죄적 본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간들로 하여금 그 본능의 족쇄에서 풀려날 수 있는 해법을 신이 친히 제시한 것이다. 그것은 죄 없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모든 인류가 지니고 있는 범죄적 본성에 따른 저주의 대가를 온전히 치르게 함으로써 법적으로 죄가 없다고 간주되는 이른바 ‘칭의’를 얻도록 하였기에,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죄의 본성을 지닌 각 개인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된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과 장차 영원한 생명을 누릴 신분이 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참된 행복이 마음에 자리하게 된다는 것이다(박정윤, 2019: 23-24).

(3) 신이 정한 생명 원리에 순종함

물론 믿음을 가진 신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의 소욕이 자리한 가운데 죄를 향한 충동을 경험한다. 그러나 성령의 뜻에 순종하면 언제든지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부여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로마서 6:4-10, 갈라디아서 5:16). 성령은 여러 가지 인간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신자들이 행복에 이를 수 있는 생명의 원리들을 따르도록 마음의 감동을 준다. 이때 이 뜻에 순종하여야만 참된 행복을 경험한다. 육신을 따라 행하면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로마서 8:6). 왜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행복에 이르는 길이 되는가?

첫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했다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 나면, 신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인격으로 변모되어 가는데 이를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라고 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하게 되면 진정한 자기존중감이 형성되기에 행복해진다. 둘째 성령의 뜻에 순종하면 만족과 감사가 넘치기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설교하였는데 이는 참된 행복이 외적 조건에 매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셋째, 성령의 뜻에 순종하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행복감을 경험하게 된다.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사랑의 행동은 충만한 기쁨을 불러오는 것이다(빌립보서 2:4). 넷째, 성령의 뜻에 따라 살면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고 국가발전에도 기여하게 되어 행복감을 경험하게 된다. 성령에 감동받은 자들의 의로운 행동들이 있게 되면 도시가 진흥되는 것이다(잠언 11:11). 유럽에서 가장 냄새나는 도시로 유명했던 스위스 제네바가 장 칼뱅의 종교개혁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박정운, 2023: 7).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면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 '거짓 행복'을 대체할 성경적 행복론

(1) 조건 없는 사랑의 체험

조건 없는 사랑을 체험하면 누구나 행복해진다. 하지만 사람들은 보통 조건적 사랑에 익숙해 있다. 어린 시절 착한 행동을 하거나 어른 말씀을 잘 들으면 칭찬을 듣고 어여빠 여김을 받기에 어른들이 원하는 바를 실천하고자 애를 쓴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조건적 사랑조차 받아보지 못한 이들도 있다. 사랑은 커녕 학대와 핍박을 받고 성장한 이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뿐더러 남도 사랑하지 못한다. 이 사랑의 결핍이 범죄와 연결되는 사례는 무수히 많다. 결국 이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조건 없는 사랑을 부여함으로써 그들에게 건강한 자아상을 심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다. 훌륭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해 줄 수 있겠으나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결핍을 느끼며 산다. 무조건적 사랑의 결핍은 인간의 실존적 한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무조건적 사랑에 의해 타락한 인간 본성의 굴레를 벗어나 질적으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 갈 수 있는 길이 이미 제시되었다고 밝히고 있다(요한복음 5:24, 고린도후서 5:17). 이는 신앙을 통해서 무조건적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의 종교적 체험을 통해 범죄자들이 참된 행복을 발견했던 사례는 청송 교도소장으로 재직시 사형수를 전도했던 박효진의 신앙간증으로 세간에 소개된 바 있다.⁵

(2) 절대적 도덕 기준의 채택

현대사회를 포스트모더니즘(post modernism)이 휩쓸고 있다. 절대적 진리의 존재를 부정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옳다고 여기면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 말하는 시대이다. 이에 따르면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어떤 단체나 사회도 다른 단체나 사회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말할 수 없다고 말한다(류현진·류현모, 2014: 202-206).

그러나 인류역사를 살펴보면 절대적 진리의 기준이 부정되고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자의적으로 정한 바를 사회규범으로 삼아 그 준수를 강요할 때 얼마나 끔찍한 범죄들이 발생했는지 알 수 있다. 공산주의자 스탈린과 국가사회주의를 표방했던 히틀리가 1933년에서 1945년까지 12년 동안 그들의 정치적 이념을 실현한다며 추진한 정책을 통해 죽음의 희생을 강요한 사람의 수가 무려 1,400여 만 명에 이른다는 사실은 진리의 상대화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고 있다.⁶ 인본주의적 세계관에서는 변화하는 윤리의 도덕성 여부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이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존적 한계를 지닌 인간이 절대불변의 진리성 여부를 그때그때 평가하고 설정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프란시스 쉐퍼(Francis A. Schaeffer)는 만일 인간의 이념 위에 절대적인 것이 없다면 개인과 집단 사이에서 도덕적 판단의 갈등이 생길 때 최종적 판결을 호소할 곳이 없게 되므로 도덕적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반드시 선재(先在) 해야 한다고 말한다(류현진·류현모, 2014: 172-173).

실존적 한계를 지닌 인간은 윤리의 궁극적 근원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에 복종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 성경에는 인류를 위한 근본적 도덕법칙이 제시되고 있다. 시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적용될 수 있는 이러한 절대적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인간이 정한 행동규범과 정부 정책들을 조명해 볼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다.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도덕 규범이 있다면 바로 ‘이웃 사랑’이라

5) https://www.youtube.com/watch?v=9IyM0xu_8LQ (검색일 2024. 8. 24)

6) 세계일보 인터넷판 2021. 3. 6일자. “1400만명 앓아간…히틀러·스탈린 대학살의 핏빛 기록.”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305511480>. (검색일 2024. 7. 29)

고 할 수 있는바 레위기 19:18, 갈라디아서 5:14, 야고보서 2:8 등이 그 규범적 근거가 된다. 이러한 도덕적 원리들을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진정 행복한 삶이라는 볼 수 있다.

(3) 차원 높은 쾌락의 추구

범죄자들이 즉각적인 쾌락의 충족을 위해 범행을 불사한다는 사실을 앞서 밝힌 바 있거니와 그들이 추구하는 쾌락은 즉흥적이고 순간적이며 일시적인 쾌락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달리 자기와 세상을 모두 이롭게 하는 숭고한 쾌락도 있다. 조나단 에드워드(Jonathan Edwards)는 그의 책, '신앙감정론(Religious Affections)'이라는 책에서 성령의 임재와 관련된 깊은 기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이진락, 2021: 127-129). 필자는 이를 '고상하고 거룩한 쾌락'이라고 칭해도 좋다고 본다.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C.S. Lewis)도 그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The Screwtape Letters)'에서 기독교적 체험을 통한 깊은 기쁨과 쾌락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예수가 주관하는 심령의 바다에는 쾌락이 넘실거리기에 영원한 즐거움을 주는 예수야말로 영락없는 쾌락주의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Lewis, 김선형 역, 2000: 145). 헨리 나우웬(Henri J. M. Nouwen) 역시 '탕자의 귀환(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신자에게 깊은 내적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또한 신자가 누리는 차원 높은 쾌락에 관한 이야기이다(Nouwen, 최종훈 역, 2009:170).

이에 범죄자들에게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쾌락추구의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닫게 하고, 거룩한 쾌락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들려줌으로써 차원 높은 쾌락을 추구하는 삶, 진정한 행복으로 연결되는 삶으로 안내해 주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범죄행위가 생물학적·심리학적·사회적 요인을 비롯하여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발생 하듯이 범죄자들이 거짓 행복을 추구하게 된 것도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이 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어린 시절 부모와의 안정적 애착관계 형성이 잘 안되어 자존감이 낮은 상태로 청소년기를 압송하게 보내고 있을 때, 같은 또래의 비행청소년들과 어울림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으며 나름의 희열을 느끼는 청소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더 나아가 또래의 범행에 동참함으로써 무력하고 우울한 상태를 벗어나 도전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면 어쩌면 그는 이전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낄지 모른다. 그것이 거짓 행복임도 자각하지 못한 채 말이다. 만일 폭력집단이 자존감이 낮은 이들을 인정해 주고, 성공적 범죄행동에 대한 칭찬과 함께 보상을 주게 된다면, 그는 거기서 자

신의 정체성을 찾고 나름의 행복을 찾으려 들 것이다. 하지만 그 행복은 거짓 행복이기에 중국적으로
로는 파멸의 길을 걷게 되고 말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일정 수준의 도덕적 인지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은밀성과 비밀성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문화의 특징 때문에 수사 및 체포 가능성을 경시한 나머지 거짓 행복의 유혹에 말려
들기가 쉽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던 범죄자도 막연히 죄의식은 있었겠지만 거짓 행복의 던져주는
즉흥적 쾌락의 미끼를 뿌리치지 못했기에 그러한 욕구충족의 시도가 불행한 삶으로 인도한다는 사
실을 각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범죄자 중에는 범행 전에 이성적 판단이 곤란하거나 범행의 손익계산을 하기 어려운 자들
도 있다. 정신병이 작동한 탓에 환상에 이끌려 범행을 하는 자들과, 이상심리(異常心理)를 가진 극
단적 사이코패스들이 격정적, 충동적으로 범행을 하는 경우가 그런 예이다. 그러나 정상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범죄자라면 사회학적 범죄이론에서 주장되는 ‘비행 하위문화 이론’이나(Cohen, 1955:
25-28), 심리학적 범죄이론에서 거론되는 ‘애착이론’(오윤성, 2013:82) 및 ‘도덕발달 이론’에 의한
범행들도(Henggeler, 1989: 26) ‘거짓 행복론’의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
하였거니와 정상적으로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라도 심리적,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범죄가 환경에 종속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범죄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
고 범죄예방 대책을 강구하려면 통합적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요컨대, 이성적 판단이 가능한 범죄자의 경우 ‘거짓 행복론’의 관점에서 범죄문제를 접근하면 다
양한 범죄이론들을 여기에 포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궁극적 행복을 지향하는 신앙적 처방을 통해
기존의 범죄이론들이 갖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이러한 특정 유형의 범죄자
들에 대한 재범 예방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 차원에서라도 범죄문제에 대하여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행복 담론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강분석 역 (2008). **에픽테토스의 자유와 행복에 이르는 기술**. Epictetus. (2nd Century CE). *Discourses*. 서울: 사람과 책.
- 김선형 역 (2000).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Lewis, C. S. (1942). *The Screwtape Letter*. 서울: 홍성사.
- 김영건·서상복·석기용·이상헌·유원기·채이병 역 (2004). **서양철학사**. Clark, S. R. L., Kenny, A., Spade, P. V. & Scruton, R. (1994).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서울: 이제이북스.
- 김인환 (2019). 자아실현과 행복. **행복한부자연구**, 제8권 제1호, 21-22.
- 김재민 (2018). **범죄학 이론**. 서울: 박영사.
- 류현진·류현모 역 (2014). **충돌하는 세계관**. Nobel, A. David (2006). *Understanding the Times: The Collision of Today's Competing Worldviews*. 서울: 꿈을 이루는 사람들.
- 박문재 역 (2022). **니코마코스 윤리학**. Aristotle. (340 BCE). *Ethika Nikomacheia*. 서울: 현대지성.
- 박정윤 (2019). **행복한 부자의 비밀**. 대구: 도서출판 행복한 부자.
- 박정윤 (2023). 도시에 적용한 행복한 부자학: 행복한 부자 도시론. **행복한부자연구**, 제12권 제2호, 7.
- 오윤성 (2019). **범죄 그 심리를 말하다**. 서울: 박영사.
- 윤종석 역 (2024).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 Keller, T. (2010). *Counterfeit Gods*. 서울: 두란노 출판사.
- 이지혜 역 (2014). **돈과 섹스**. Tripp, P. D. (2013). *Sex and Money: Pleasures That Leave You Empty and Grace That Satisfies*. Crossway. 서울: 아바서원.
- 이진락 (2021).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감정론. **목회와 신학**, 2021년 6월호, 127-129.
- 조병희 (2015). 쾌락주의를 위한 변론. - 가쌍디 윤리학에 관한 소고-. **인문과학**, 제56집, 166.
- 최종훈 역 (2009). **탕자의 귀향**. Nouwen, H. J. M. (1992).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 A Story of Homecoming*. 서울: 포이에마.
- 하규만 (2001). Maslow의 욕구단계이론의 한국적 적용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와 행정 연구**, 제12권 제1호, 80-81.
- 허경미 (2015). **현대사회와 범죄**. 서울: 박영사.
- Akers, R. (1977). *Deviant Behavior: A Social learning Approach*. (2nd ed). Belmont CA: Wadsworth.
- Bandura, A. (1979). The Social Learning Perspective: Mechanism of Aggression. in Hans T. (Ed.)

- (1979). *Psychology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New York: Rinehart & Winston.
- Cohen, A. (1955). *Delinquent Boys*, New York: Free Press.
- Foster, R. (2009). *Money, Sex and Power : The Challenge of the Disciplined Life*. New York: HarperOne.
- Henggeler, S. (1989). *Delinquency in Adolencece*. Newbury Park. CA:Sage.
- Holmes, R. M. & Holmes, S. T. (2002). *Profiling Violent Crimes an Investigative Tool* (3rd Ed.). Sage Publications.
- Diener, E., & Larsen, R. J. (1993). The experience of emotional well-being. in Lewis M. & Lewis J. M. & Haviland J. M. (Ed.) (1993). *Handbook of emotions*. New York: Guilford.
- Schechter, H. (2004). *The Serial Killer Files*. New York: Ballantine Books.
- Sutherland, E. (1939). *Principles of Criminology* (3rd Ed.). Philadelphia: J. B. Lippincott Company.
- Wood, E. & Riggs, S. (2008). Predictors of Child Molestation: Adult Attachment, Cognitive Distortions and Empathy.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3(2), 259-275.
- 나무위키 “정남규(범죄자)”
[https://namu.wiki/w/%EC%A0%95%EB%82%A8%EA%B7%9C\(%EB%B2%94%EC%A3%84%EC%9E%90\)](https://namu.wiki/w/%EC%A0%95%EB%82%A8%EA%B7%9C(%EB%B2%94%EC%A3%84%EC%9E%90)) (검색일 2024. 8. 26.)
- 뉴스1 2024. 5. 16일자. “태국 파티야 드럼통 살인사건, 돈 노린 계획범죄였다”
<https://www.news1.kr/world/asia-australia/5417462> (검색일 2024. 8. 26.)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407276> (검색일 2024. 6. 29.)
- 세계일보 인터넷판 2021. 3. 6일자. “1400만명 앗아간…히틀러·스탈린 대학살의 핏빛 기록.”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305511480>. (검색일 2024. 7. 29.)
- 유튜브 채널. “박효진 장로님의 사형수 전도 간증”
https://www.youtube.com/watch?v=9IyM0xu_8LQ (검색일 2024. 8. 24.)
- 위키백과 “행복의 정의”
<https://ko.wikipedia.org/wiki/%ED%96%89%EB%B3%B5>. (검색일 2024. 7. 30.)
- KBS 뉴스 2020. 3. 22일자. “미성년자 ‘노예’ 만들어 자극적 영상물 촬영…지금도 거래된다.”

범죄자가 추구하는 '거짓 행복'의 실체와 '참된 행복'의 탐색

The Reality of 'False Happiness' Pursued by Criminals and the Search for 'True Happiness'

김재민 (경일대학교)

논문초록

최근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자들이 거짓된 행복 개념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거짓 행복의 원인과 특징을 분석하고,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참된 행복의 관점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복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만족과 기쁨을 의미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자아실현과 윤리적 가치의 실현으로 확장되었다. 성경은 '이웃 사랑'이라는 도덕적 기준을 실천함으로써 참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특정 범죄자들이 추구하는 거짓 행복은 순간적 쾌락, 물질적 탐욕, 권력에의 집착을 특징으로 하며, 이들은 이러한 왜곡된 행복관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게 된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과 사회에 해를 끼치므로 참된 행복이 아니다. '거짓 행복이론'을 활용해서 범죄문제를 접근하면 기존의 범죄이론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설명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 기독교 세계관에 기반을 둔 '참된 행복이론'의 처방을 통해 기존 범죄이론이 가진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유형 범죄자들에 대한 범죄원인 규명과 범죄예방을 위하여 성경적 행복담론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거짓 행복, 참된 행복, 범죄자, 성경, 기독교